

【온타케야마의 분화로 돌아가신 요코타 카즈마씨를 추모하며】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어제 온타케야마의 분화로 돌아가신 요코타 카즈마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요코타 씨는 오카야마 소잔고등학교의 같은 테니스 부로서 8명 (남자 6명, 여자 2명) 밖에 없는 동급생 부원의 한사람. 인품이나 경력은 보도 등을 통해 아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고교 시절부터 차분한 타입으로 퇴직을 계기로 2년 전부터 「일본 알프스가 가까워서」 라고 하며 나가노에 단신으로 이주해 자연관찰회 가이드 등으로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이번 분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기원합니다.

저 자신, 자연 재해로 가까운 친분을 잃어버린 것은 첫 경험이며,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내각부 재해 담당을 하고 있던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당시는 자연재해라고 하면 지진이나 호우 등이 화제가 되었지만, 「화산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오르고 있던 어느 날 중앙 재해 회의에서 화산분화 예지 연락회의 후지이 토시츠구회장이 화산의 위험성에 대해 강연해 주셔서 총리 이하,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이 지금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강연은 아사마야마와 사쿠라지마 등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그 강연 중 후지이 선생님에게 배웠던 것이 9월 29일자 일본경제신문의 칼럼에

게재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 옛날 학교에서 이 3 분류를 배워 아직 그 기억이 남아 있는 분도 많을 것이다. (중략) 그러나 현재, 이런 구분은 폐지되어 과거 1 만 년 이내에 분화한 화산은 모두 「활화산」이다.

역사 시대, 즉 문자가 생겨나고 난 뒤의 분화 기록이 없으면 사화산으로 간주하고 기록이 있어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으면 휴화산이라는 것이 과거의 판정이었다. 대자연속에서 인간의 시간 감각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이야기로, 점차 재검토가 진행되었다. 그것을 결정지은 것이 1979 년의 온 타케야마의 분화이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화산이 살아 있었다.

그 온타케가 아직 날뛰고 있다. (이하 생략) 』

이상이 칼럼에서 인용한 내용이지만, 이번 온타케 분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 번 대자연 앞에서의 인간의 무력 함을 엿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10 개의 활화산이 즐비한 「화산열도」입니다. 다행히 오카야마 현에는 활화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은 때로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 넘는 위협을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자연 재해에 대비해 상상 할 수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재해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인명 구조 및 복구 등의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했습니다.